

#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삼국통일' 관련 대중의 역사인식

정선화\*\*

유튜브 이용자의 인지 편향(Cognitive Bias)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대중의 역사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재생산·소비되고 있는 '삼국통일' 관련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탐구한 것이다. SNS의 블로그와 카페 등 친목을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는 문화친화적인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삼국통일'의 전쟁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나 인물의 등장은 역사교과서나 유튜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역사수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질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튜브의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채널도 있으나 영상의 목적에 따라 확대재해석한 창작된 '이야기'나 궤변을 담은 영상의 유통이 활발하였다. 이와 같은 영상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성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댓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삼국통일, 소셜미디어, 대중, 역사인식, 인지 편향

## 1. 머리말

신라는 한반도에서 형성된 고대 국가 중 소비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학계의 연구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중에 의한 SNS(Social Networking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037258).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 박사

Service) 기록, 유튜브(YouTube)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신라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대 국가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는 신라가 존속한 약 천 년의 기간을 상정해 보더라도 가늠할 수 있지만 7세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삼국통일’ 관련 다양한 논쟁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삼국통일에 관한 평가와 의의 및 한계는 삼국통일의 이 중성을 보여주는 서술 유형<sup>1</sup>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다양하다. 또한 삼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용어 중에는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7세기 말 한반도의 통일전쟁 후 발해가 건국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북국시대’인지, ‘통일신라시대’인지 서술상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신라의 국호는 ‘신라’와 ‘통일신라’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sup>2</sup> 또한 삼국통일 이후 발해의 건국은 발해사의 한국사 귀속 여부 문제를 낳았다. 이와 함께 만선사학을 비롯한 ‘식민사학’ 극복을 위한 ‘민족주의 담론’으로 확대해석되고 있으며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sup>3</sup> 일제의 지배하에서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대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당시의 한국인들이 추구한 근대 역사학, 근대 민족국가에 대한 연구는 일제의 영향하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4</sup>

1 김기봉(2007), 『‘역사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pp. 54-55.

2 정선화(2024), 「‘삼국통일’ 및 발해사 관련 역사인식과 용어 사용의 비판적 검토」, 『사림』 90, 수선사학회, pp. 122-129.

3 김영하(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p. 9; 임지현 외(2022), 『역사에서 기억으로』, 진실의힘, p. 245; 정준영(202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pp. 96-97.

4 정상우(2012), 「『朝鮮史』(朝鮮史編修會)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p. 274; 이신철(2012), 「한국 근대 역사주체의 형성과 근대 역사

이상과 같이 '삼국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규명하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역사학계의 이견은 역사교과서의 집필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일반 대중의 역사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중 역사가들에 의한 다채로운 상상과 해석에 의한 역사콘텐츠를 접할 기회도 많다. 대학 진학 후에는 더욱 다양한 경로로 역사를 접한다. 고대의 역사 중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관련 텍스트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대중에 의해 활발하게 생산·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의 역사인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역사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사지식에서 출발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활용한 학교 밖 역사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프로슈머(prosumer)로 활동하기도 한다. SNS에 저장된 기록은 전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가 직접 작성하고 공개한 텍스트다. 여기에는 대중의 희망, 기대, 관심, 기호 등의 인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대중의 역사인식을 연구하는 데 좋은 데이터를 제공한다.<sup>5</sup>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방송용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방송제작에 도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sup>6</sup>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시대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낸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공감을 유도하는 힘이 있어 대중을 이끌고 들끓게 한다. 그 힘이 대중으로 하여금 더 오래 소셜미디어에 머물게 한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적대적인

학의 태동, 『사림』 42, 수선사학회, p. 31; 김중복(2015),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위한 예비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 260.

5 양호환(2009),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pp. 44-49; 안병우(2017), 「역사연구와 기록: 현대 역사학과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p. 400.

6 공훈의(2010), 『소셜미디어 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한스미디어, pp. 4-6.

감정 표출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sup>7</sup> 또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작성 주체에 관한 미확인 정보 및 영상 내용의 허위 정보 유통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sup>8</sup> 영상이나 댓글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특정인,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찬양하기도 한다. 자신과 비슷한 의견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하고, 반대 의견은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인지 편향이 인터넷에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9</sup> 이는 인간의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라는 편리함을 우선시한 결과 마땅히 갖추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의 대중문화산물은 대중의 관심거리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10</sup> 인식을 이해하려면 인식하고 있는 주체의 언어를 직접 수집·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의 역사인식 분석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다.

본 연구를 통해 ‘삼국통일’ 관련 SNS 데이터, 유튜브에서 생산·소비되고 있는 영상의 오디오 데이터와 해당 영상의 댓글을 수집·분석하여 대중의 역사인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대중 역사가들에 의한 전문성이 결여된 콘텐츠와 흥미를 좇는 ‘가짜’역사<sup>11</sup>를 통해 자신의 정파성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한 ‘역사이야기’를 ‘진짜’ 역사로 믿게 하는<sup>12</sup> 실태를 들여다보

7 이항우(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성: 한 온라인 토론그룹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밍(flamming)”에 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5, 한국정보사회학회, p. 2.

8 룬 라이히 외(2022), 이영래 역, 『시스템 에러: 빅테크 시대의 윤리학』, 어크로스, pp. 331-334.

9 이남석(2013), 이정모 감수,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 편향』, 옥당, pp. 287-292.

10 한균태 외(2011), 『현대사회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pp. 45-46; 백선기(2015), 『대중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 13-14.

11 이 글에서 사용한 “가짜역사”는 재미와 감동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의 역사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조작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의미한다.

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패턴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인지 양상이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역사인식'은 역사학이나 역사교육학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다. 학술용어 이전에 일상어로 역사에 대한 관심,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함축되어 있다. '역사인식'을 설명하는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연구자마다 글의 맥락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sup>13</sup> 역사인식은 역사서술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논란이 있거나 이견이 분명한 쟁점에 관해 서술자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역사교과서에는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하는 역사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집필자의 역사인식이 담겨 있다. 결국 대중은 검증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현장교사의 관점까지 더해진 역사수업의 내용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역사인식을 형성해 간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삼국통일' 관련 단원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대로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역사지식은 성인이 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역사 소비로 인해 인식에 변화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역사 왜곡과 굴곡된 역사관은 일반 대중의 정치적 극단화나 극우 성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학계에서 논쟁 중인 주제는 일반 대중의 역사인식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에는 대중에 의한 역사물의 생산과 소비의 흔적이 저장되어 있다. 즉 일반 대중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대중이 직접 기록하여 저장한

12 최은창(2020), 『가짜뉴스의 고고학』, 동아시아, pp. 18-26; 필리프 브르통(2020), 박선희 역, 『조작된 말』,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pp. 70-71; 미야자키 마사카츠(2021), 장하나 역,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 매일경제신문사, pp. 14-17, p. 246.

13 오해섭 외(20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국가관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23-24; 김한중(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 113, 역사교육연구회, pp. 27-33.

14 宋相憲(2010), 「역사 인식에서 미래 전망의 역사교육적 의미」, 『역사교육』 115, 역사교육연구회, pp. 1-5.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sup>15</sup> 따라서 대중의 역사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역사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23종)의 ‘삼국 통일’과 발해사 관련 서술 분석을 마쳤다.<sup>16</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석 방법을 달리하여 데이터의 시스템적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방법은 교과서 텍스트의 키워드 출현 빈도와 키워드 간 의미 관계망을 통해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sup>17</sup>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대중의 역사인식을 3장과 4장에서 논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텍스트 분석 방법

본고의 3장에서 실행한 연구 방법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이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0년간의 고대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sup>18</sup>하거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키워드를 통해 텍스트의 네트워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sup>19</sup> 또한 SNS의 기록을 중심으로

15 정선화(2022a), 「SNS 기록을 통해 본 대중의 가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78, 동북아역사재단, p. 216.

16 정선화(2024).

17 이에 관해 연구 성과는 정선화 글의 각주 참조 바람[鄭善花(2022b),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64, 역사교육연구회, p. 124].

18 서호준(2021), 「빅데이터와 한국 고대사 연구경향」, 『대구사학』 144, 대구사학회.

19 허수(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鄭善花(2022b).

가야사에 관한 대중의 역사인식을 분석하기도 하였다.<sup>20</sup>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므로 연구에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텍스트 데이터의 용량이 클수록 수작업만으로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데이터 분석 기법은 대량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SNS 데이터는 국내 포털사이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크롤링(data crawling: 데이터 수집, 저장하는 일)한 것이다. 유튜브 영상의 오디오 데이터는 최근 8년간 업로드된 프로그램을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크롤링한 것이다. 댓글은 2024년 7월에 크롤링을 마쳤고, SNS 데이터, 유튜브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전처리, 형태소 분석, 후처리 작업을 2024년 8월부터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데이터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자('등', '막', '즉'), 한자와 외국어, '.'와 같은 기호는 삭제하였다. 최종 정제데이터에서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않았거나 걸러지지 않은 불용어(stopwords)의 임의 삭제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점은 보완하고자 한다. 전처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후 정제데이터 생성을 위한 형태소 분석, 후처리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TEXTOM의 1-mode 매트릭스 분석(Matrix Analysis)을 통해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으로 도출된 상위 키워드의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제시하고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Co-occurrence)를 엔그램(N-gram)으로 시각화하였다. 유튜브 영상의 오디오 데이터는 오픈 소스를 통해 텍스트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음향을 음성으로 인식하거나 누락되는 문장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20 정선화(2022a).

[표 1] 소셜미디어 수집 데이터<sup>21</sup>

	SNS 데이터	유튜브 오디오 데이터	유튜브 댓글
검색 키워드	'삼국통일', '통일신라'		
수집범위	2000. 1. 1. ~ 2023. 12. 31.	2024년 기준 8년 이내	
채널	네이버, 다음, 구글, 트위터	유튜브: KBS한국사傳(전), KBS 역사스페셜, EBSi, tvN STORY, 황현필한국사×4, 역사길잡이최재원, 강제민한국사, 설민석Seol Min Seok, 센서스튜디오, 역사돋보기×2, 사피엔스 스튜디오, 역사랑놀자, 보다BODA, 운명철교수의 역사대학, 조감제TV, 이덕일역사TV, 쿠릴타이TV, 고종훈한국사, 허준허튜브, 뽕공시대TV, 현재사는심용환, 지리트릭스_GeoTrix	
데이터량	3,788건	채널: 22개, 콘텐츠 26편	26개의 콘텐츠에서 9,370개
프로그램	텍스툼 솔루션		
분석도구	텍스트 마이닝 매트릭스 1-mode		
분석방법	TF-IDF, N-gram		

연구의 유튜브 오디오 데이터는 연구자가 직접 영상을 들으며 전사하였다. 댓글은 복사하기가 가능하다.

TF-IDF는 각 단어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나타낸 수치다. TF(Term Frequency)는 단어가 출현한 빈도, DF(Document Frequency)는 특정 단어가 출현하는 코퍼스(말뭉치 또는 문서군)를 나타낸다.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경우 무의미한 반복 출현인지, 주변 단어들과 상관관계가 뚜렷한 핵심 단어 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sup>22</sup> 쉽게 말해 TF-IDF 수치가 높게 나타난 단어

21 이 글의 검토 대상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 순차적으로 크롤링한 것이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본 연구 외 활용된 바가 없으며 데이터의 임의 조작이나 왜곡은 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22 포스터 프로보스트·톰 포셋(2014), 강권학 역,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과학』, 한빛미디어, pp. 299-301; 송민(2017),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청람, pp. 89-90; 이정락 외(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 출판부, p. 119.

는 문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커피를 연구하기 위한 코퍼스에서는 '커피'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커피'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정 커피 브랜드, 커피의 주산지, 생산 방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단어의 위상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2.2. 『한국사』 교과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대중의 역사인식을 탐구하기에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소비되고 있는 '삼국통일' 관련 텍스트 분석을 먼저 살펴보았다. 대야성 전투부터 후삼국시대 전까지 모든 텍스트를 직접 전사하였다.<sup>23</sup>

[표 2] ①은 단어 출현 빈도(TF)와 단어의 중요도(TF-IDF)를 수치로 보여준다. ①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는 262회 출현한 '고구려'이며, '신라'가 그다음이다. 문서군(DF)은 '신라'가 93개로 79개인 '고구려'보다 많다. 즉 신라는 고구려보다 더 많은 문서군에 등장하며 단어의 출현 빈도는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TF-IDF 가중치는 '고구려'가 높다. 단어의 출현 빈도가 곧 단어의 위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TF-IDF 가중치를

23 개정 교육과정[2010 검정본(6종), 2009(8종), 2015(9종)]에 의한 고등학교 『한국사』를 대상으로 '삼국통일' 관련 단원의 제목, 본문과 학습자료의 모든 텍스트(3만 3,000자)를 전사하였다. 분석도구는 텍스트 마이닝 1-mode 매트릭스이며 TF-IDF, N-gram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2010 검정본(『역사(상)』 8종), 2009(『역사①』 9종), 2015(『역사②』 7종)]의 8만 700자를 전사하여 『한국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키워드 출현 빈도와 텍스트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 『한국사』와의 특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아 각주로 대신하고자 한다.

중학교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는 '신라'이며 TF-IDF가 가장 높은 단어는 '고구려'로 『한국사』와 유사하다. '신라'는 중학교 『역사』 24종의 278개의 문서군에서 700회 등장한다. 엔그램은 '신라'와 '당'의 동시 출현이 가장 빈번하며 '백제'와 '고구려', '신라'와 '삼국통일', '고구려'와 '멸망' 순이다. 다만 『한국사』에 나타나지 않는 '김춘추'와 '고구려'(14위), '김춘추'와 '당'(20위)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다.

[표 2] 『한국사』의 TF-IDF와 엔그램

구분	① 『한국사』 TF-IDF				② 『한국사』 엔그램		
	단어	TF	DF	TF-IDF	단어1	단어2	빈도
1	고구려	262	79	164.47	삼국	통일	82
2	당	226	77	147.66	고구려	멸망	52
3	백제	230	78	147.31	백제	고구려	47
4	공격	95	39	126.69	신라	당	36
5	신라	253	93	117.54	신라	삼국	36
6	통일	121	64	101.43	백제	공격	30
7	멸망	103	57	98.27	백제	멸망	26
8	삼국	97	58	90.86	신라	고구려	25
9	나당연합군	35	15	80.12	고구려	백제	25
10	땅	48	30	76.6	고구려	유민	23
11	부흥	42	24	76.4	백제	땅	21
12	나당	49	32	75.04	고구려	공격	20
13	유민	42	27	71.45	멸망	이후	19
14	문화	33	17	71.41	신라	백제	15
15	김춘추	40	25	71.13	공격	고구려	15
16	지배	45	32	68.91	당	세력	15
17	부흥운동	33	19	67.74	민족	문화	15
18	전쟁	53	42	66.75	고구려	수당	14
19	연개소문	38	27	64.65	백제	유민	14
20	민족	31	21	60.53	고구려	부흥	14
21	세력	30	20	60.04	한반도	전체	14
22	함락	33	24	60.03	백제	부흥	14
23	당군	36	28	59.94	백제	의자왕	13
24	삼국통일	23	11	59.78	당	신라	12
25	군사	34	26	59.12	전체	지배	12
26	백성	29	20	58.04	신라	삼국통일	12
27	한반도	35	30	55.86	사비성	함락	11
28	실패	27	20	54.03	전쟁	국력	11
29	종족	18	9	50.39	평양성	함락	11
30	동맹	25	20	50.03	고구려	땅	11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 다음 중요도가 높은 단어는 '당'이다. '당'의 단어 출현 빈도와 문서군의 개수는 '신라'보다 낮은 4위지만 TF-IDF 가중치는 '고구려' 다음으로 높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당'은 핵심어로서 주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①에서는 전쟁 관련 단어의 빈도가 높다. 반면 전쟁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화'와 '종족'의 등장이 주목된다. '문화'는 TF-IDF의 총산출 단어 1,127위 중 20위, '종족'은 29위다.<sup>24</sup> 이는 고대사 영역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학습목표와 집필기준<sup>25</sup>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성취기준과 집필기준<sup>26</sup>에 잘 나타나 있다. 또, 중학교 『역사』에 비해 사상, 종교를 포함한 문화사의 서술 비중이 높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sup>27</sup>

[표 2] ①의 TF-IDF의 가중치에 따르면 삼국통일 관련 서술에서 '당'의 위상은 '고구려' 다음으로 높다. 당은 신라와 함께 전쟁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통계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나라는 김춘추의 당 청병 활동을 필두로 나·당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8</sup> 신라의 입장에서는 김춘추의 청병 활동으로 얻어낸 나·당 동맹과 그 이후의 나·당 연합이 없었다면 삼국통일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은 역사교과서에서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은 타자로 인식하는 반면 삼국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는 민족주의

24 중학교 『역사』에서는 '문화'는 54위이고 '종족'은 160위다.

25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4]」, p. 153, pp. 155-156;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 기준」, p. 3.

26 교육부(2018a),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p. 145; 교육부(2018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p. 54.

27 중학교 『역사』의 경우 1,850개의 단어 중 '문화'는 54위이고, '종족'은 160위다.

28 이재환(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p. 46.

역사관이 내재된 서술, 전쟁의 최종 승자를 신라로 인식하여 신라 중심으로 삼국통일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채호의 「독사신론」을 활용한 삼국통일에 관한 평가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②의 엔그램은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단어적으로 보여준다. ‘삼국’과 ‘통일’의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고구려’와 ‘멸망’이다. ‘삼국’과 ‘통일’, ‘신라’와 ‘삼국통일’은 삼국통일을 다루는 단위에서는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다. ②의 상위 단어 중 ‘신라’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는 ‘당’, ‘삼국’, ‘고구려’, ‘백제’, ‘삼국통일’(5개)로 확인되고 ‘고구려’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는 ‘멸망’, ‘백제’, ‘신라’, ‘유민’, ‘공격’, ‘수당’, ‘부흥’(7개)이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단어의 수는 ‘고구려’가 ‘신라’에 비해 2배가량 많다.<sup>29</sup> 두 단어의 출현 빈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도 핵심어로서의 위상은 ‘고구려’가 훨씬 높다. TF-IDF의 가중치는 단어의 중요도를 함께 출현하는 단어와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이는 ‘고구려’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를 이끌며 삼국통일 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삼국통일 관련 텍스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고빈도 키워드는 ‘고구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라의(에 의한) 삼국통일을 다루는 단위에서 ‘신라’는 ‘고구려’만큼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우선 고구려는 7세기 중·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과정에서 신라와 대적점에 놓여 있다가 멸망 후 교과서 서술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단어의 출현 빈도만 보면 ‘신라’와 ‘고구려’의 출현 빈도는 유사한데 ‘신라’는 해당 단위 전반에서 ‘신라는’, ‘신라가’, ‘신라의’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반복 노출은 ‘반복

29 이는 중학교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사』에서 ‘신라’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당’, ‘삼국통일’, ‘고구려’, ‘김춘추’(4개)이고, ‘고구려’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백제’, ‘멸망’, ‘부흥운동’, ‘유민’, ‘땅’, ‘김춘추’, ‘공격’, ‘당’(8개)이다.

편견'(Repetition Bias)에 의해 유의미한 키워드로 인식<sup>30</sup>될 확률이 높다. 다음, 고구려는 전쟁 시작부터 부흥운동까지 멸망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한 평가'를 탐구활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삼국통일이 신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통일 이후 신라의 국호는 '신라'뿐 아니라 '통일 신라'로도 서술되고 있으며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기'의 표기도 있다. 멸망한 고구려에 비해 훨씬 긴 기간 역사교과서에서 소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교육학 분야에서 연구 대상으로도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3. 소셜미디어의 키워드 출현 빈도에 따른 인식 양상

#### 3.1. TF-IDF 가중치로 본 인식

SNS 데이터와 유튜브 일부 영상, 댓글의 생산 주체는 대부분 불특정인이다. 각기 다른 공간에 남겨진 텍스트에 내재된 역사인식은 어떤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의 각 데이터에서 도출된 단어는 ③에서는 3,119개이며 ④는 5,294개이고 ⑤는 1만 7,548개다. 이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는 ③은 '신라', '통일', '고구려', '백제', '역사' 순이고, ④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 '김춘추' 순, ⑤는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 '역사' 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7세기 중·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당사국으로 일반적인 출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한국사』 교과서의 단어 출현 빈도와 중요도는 '고구려' 다음 '당'으로 역사

30 토드 로즈(2023),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pp. 257-258.

[표 3] 소셜미디어의 TF-IDF

순 위	③ SNS 데이터				④ 유튜브 오디오 데이터				⑤ 유튜브 댓글			
	단어	TF	DF	TF-IDF	단어	TF	DF	TF-IDF	단어	TF	DF	TF-IDF
1	신라	2479	1345	1308.37	고구려	773	58	647.3	고구려	2407	1535	3322.65
2	고구려	995	664	1227.48	백제	695	63	524.52	신라	1247	818	2506.26
3	통일	1904	1236	1165.8	신라	659	63	497.35	백제	1019	698	2209.68
4	백제	617	466	979.63	당나라	407	43	462.61	통일	961	712	2064.82
5	역사	580	444	948.94	김춘추	349	41	413.3	역사	856	671	1889.98
6	전쟁	346	247	768.99	멸망	233	42	270.31	중국	769	573	1819.31
7	멸망	315	215	743.8	김유신	156	26	255.79	한반도	476	375	1327.93
8	김유신	283	181	716.96	의자왕	150	29	229.58	우리	448	353	1276.9
9	의의	273	190	678.37	연개소문	131	25	219.94	일본	368	278	1136.78
10	나당	267	204	644.48	부흥운동	85	14	191.99	당나라	358	260	1129.85
11	당나라	268	217	630.34	당	134	34	183.77	삼국통일	345	299	1040.6
12	민족	257	202	622.88	문무왕	89	17	183.75	발해	309	229	1014.44
13	김춘추	226	160	600.42	중국	115	29	176.01	고려	293	216	979.03
14	당	221	177	564.82	당태종	73	14	164.89	영토	296	225	976.97
15	전투	192	123	560.59	복신	54	8	152.19	민족	291	230	954.07
16	한계	206	151	559.21	전쟁	112	35	150.35	멸망	294	250	939.4
17	한국사	212	177	541.82	국가	89	25	149.42	국가	283	225	934.06
18	문무왕	187	136	527.2	역사	106	34	145.37	당	258	206	874.31
19	영토	173	142	480.26	일본	62	13	144.63	만주	249	204	846.24
20	한반도	160	143	443.05	전투	92	28	144.03	조선	248	203	844.06
21	경주	137	91	441.28	군사	82	25	137.67	땅	242	197	830.9
22	문화	146	113	438.66	당나라군	57	12	137.53	삼국	229	204	778.27
23	외세	151	130	432.52	부흥	50	9	135.03	전쟁	222	186	774.99
24	긍정	134	91	431.62	삼국통일	100	35	134.24	선생	217	182	762.25
25	발해	134	96	424.45	대야성	65	17	134.2	김춘추	170	145	635.79
26	건국	115	85	385.23	공격	99	35	133.12	연개소문	162	131	622.32
27	한국	127	80	384.99	한반도	92	33	128.92	만약	153	142	575.41
28	대동강	125	110	377.8	민족	59	17	128.75	감사	152	147	566.39
29	연합	122	111	374.35	외교	56	16	119.01	중원	141	116	558.79
30	부정	111	83	367.75	선덕여왕	52	15	113.86	강의	145	137	550.52

교과서의 서술을 이끄는 핵심어로서 높은 위상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전반적으로 '당'의 위상이 [표 2] ①의 순위보다 낮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생산자들이 삼국통일 관련 역사적 사실(전쟁 과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당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주제를 선택적으로 생산한 결과라 판단된다.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당'은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진 '적국'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와 같은 서술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마지막 승자라는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 대중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삼국통일의 긍정적 평가, 통일 이후의 신라 문화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에서는 통일 이후의 신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한 것을 '경주', '문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경주'가 등장하는 문서군은 91개지만 130개의 문서군에 등장하는 '외세'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의 단어 중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신라', '고구려', '백제', '멸망', '역사', '전쟁', '당나라', '김춘추', '당', '한반도', '민족' 등 11개다. 즉 [표 2]의 ①과 [표 3] 모두에 등장하는 상위 30위 내의 단어는 순위에 상관없이 '신라', '고구려', '백제', '당', '멸망', '한반도', '민족'이다. 이 중에 통일전쟁과 직접 연관 있는 단어와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면 '한반도'와 '민족'만 남는다. 한반도의 민족을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족'은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서 '문화'와의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우리'와 동시 출현하는 빈도가 높다. '문화'는 '민족의 문화' 또는 '우리 민족 문화'라는 서사 구조에서 굳어진 소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문화'는 SNS 데이터에만 나타난다. SNS는 같은 주제일 경우 유튜브 영상에서 소비되는 역사적 쟁점, 특히 전쟁을 소재로 한 콘텐츠보다 문화친화적인 단어의 소비가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전술한 대로 통일 이후의 신라 문화의 본고장인 '경주'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네이버 지식iN에는 초·중·고등학생이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없는 의견을 수집할 목적으로 올린 질문들이 많다. ‘한계’, ‘의의’, ‘한국사’, ‘외세’, ‘긍정’, ‘대동강’, ‘부정’은 역사교과서에서 「삼국통일의 평가」,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때 동원되는 단어다. 역사 교사의 설명을 넘어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지적 호기심과도 연관이 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표 3]의 데이터에 출현하는 인물의 특징이다. [표 3]의 ④에는 ‘김춘추’, ‘김유신’, ‘의자왕’, ‘선덕여왕’ 등 인물 관련 단어가 8개 등장한다. 반면 ③에는 3개, ⑤에서는 2개가 확인된다. 유튜브 영상은 역사적 쟁점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인물을 앞세운 서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김춘추’, ‘김유신’ 외에도 ‘연개소문’, ‘의자왕’, ‘선덕여왕’이 등장한다. 이야깃거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쟁을 중심으로 콘텐츠화하는 특성상 당사국을 대표하는 인물의 등장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당태종은 비교적 적은 14개의 문서군에 등장하지만 중요도는 14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의 인물을 중심으로, 특히 전쟁의 승자인 신라를 중심으로 인물 소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그림 1]은 SNS 데이터와 유튜브 영상 오디오 데이터의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빈도를 보여주는 엔그램 지표를 시각화한 것이다. SNS 엔그램에서는 ‘삼국통일’과 ‘삼국’의 동시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앞서 살펴본 대로 SNS 데이터의 단어 출현 빈도([표 3]의 ③)에는 ‘삼국’과 ‘삼국통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1](좌)과 같이 ‘삼국통일’과 ‘삼국’의 연결망이 가장 굵다. 화살표의 굵기는 연결된 두 단어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연결된 화살표의 굵기가 굵을수록 두 단어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SNS 데이터에서 ‘삼국’은 2,269개의 문서군에서 5,061회 등장하며 ‘삼국통일’은 2,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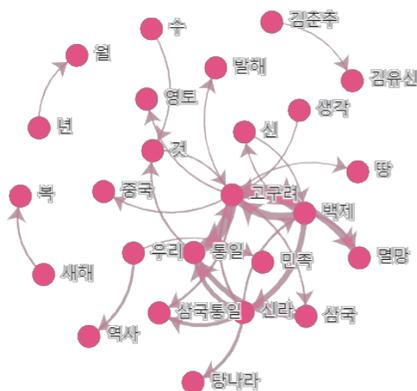
시 출현하는 단어쌍의 의미연결망이 [그림 1](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선 가장 견고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쌍은 ‘백제’와 ‘멸망’이고 다음은 ‘고구려’와 ‘멸망’이다. 엔그램에서 유의미한 키워드는 동시 출현 빈도뿐 아니라 TF-IDF 가중치에서도 동일한 위상을 수치로 보여준다. 영상 제작자들은 ‘삼국통일’ 관련 서술을 신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부터 고구려와 백제 멸망 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까지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서사는 있지만 새로운 담론은 없다. 유튜버<sup>32</sup> 중에는 역사를 전공한 전직 대학 교수가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와 그 외 개인 유튜버 모두 한국 고대사를 학문으로 연구하며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전문 학자는 아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역사학의 핵심인 사료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에서 소비되고 있는 역사 관련 내용은 역사학계의 권위와 연구에 기대어 대중을 대상으로 확대재해석한 후 자신의 주관에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창작물이 대부분이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지상파 방송의 경우 유적지가 등장하는 영상에서는 해당 유적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인터뷰이가 등장한다. 모두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영상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하며 개인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주관뿐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 전달과 조작, 왜곡, 상상 등이 첨가되어 역사가 아닌 ‘역사이야기’가 창작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소비하고자 적극적으로 댓글 달기에 참

32 이 글의 ‘유튜버’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재미와 흥미, 허구나 조작, 상상 등을 가미한 역사 이야기를 콘텐츠화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유통시키는 크리에이터를 통칭한 것이다. 개인 유튜버, 개인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강연자도 포함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대중 역사가’로 칭하였다.

여한다.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은 역사수업을 통해서는 접하지 못한 흥미로운 요소들이 재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널 이용자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다음 [그림 2] 댓글의 엔그램 시각화에서 강한 의미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단어 짝은 '고구려'와 '통일', '고구려'와 '백제', '통일'과 '민족', '고구려'와 '멸망' 등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댓글 데이터에서 중요도가 가장 큰 단어는 '고구려'다. 댓글은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피드백이므로 [표 3] ④에서 가중치가 높았던 키워드와 상관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한 대중들이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 '고구려'를 빈번하게 언급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일의 주인공이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영상에서는 통일전쟁의 주역이 신라인 것에 대한 불만을 원색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른 연구 성과를 제시한 역사학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영상일수록 댓글과 조회수가 높다. 이는 삼국통일의 원인이 신라 김춘추의 사적인 복수(혹은 원한, 보복으로 표현하고 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인용 1]은 관련 영상의 오디오 데이터 일부를 옮긴 것이다.



[그림 2] 유튜브 댓글 엔그램

[인용 1]<sup>33</sup>

- Ⓐ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는 김춘추의 오랜 여망과 복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 Ⓑ 딸의 죽음과 사위의 비겁한 행위는 나에게 깊은 한을 남겼다.
- Ⓒ 대야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분기점이 된다. 백제를 향한 복수는 정말 간절했겠죠.
- Ⓓ 김춘추는 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그의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는데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춘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의 선택은 바로 외교술이었다.
- Ⓔ 김춘추의 처절한 복수 때문에 백제가 멸망한 거죠.
- Ⓕ 어떻게 동아시아 최강자였던 고구려가 아니라 뜬금없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을까. 신기하죠.

[인용 1]과 같은 설명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신라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촉발된 전쟁이 강대국인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고구려 멸망에 대한 아쉬움은 멸망 전 고구려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고구려에 대해 수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점, 수에 이어 성립한 당의 침략마저 스스로 막아낸 강한 나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한 나라인 고구려를 '외세를 끌어들이며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영토까지 대부분 상실'한 것에 대한 원

33 Ⓐ~Ⓕ까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또는 출연 강연자)의 설명이 비공개인 경우 '의명'으로 표기함. Ⓐ, KBS, 「백제를 멸하리라, 김춘추의 지독한 복수」, KBS 역사저널 그날, 2007. 9. 29.; Ⓑ, KBS, 「대왕의 꿈, 김춘추의 꿈 '동북아를 제패하라」, KBS 역사스페셜, 2022. 2. 16.; Ⓒ, 최태성, 「딸의 목숨을 앗아간 의자왕에게 백제의 멸망을 보여주며 제대로 복수한 아버지 김춘추」, 사피엔스 스튜디오, 2022. 7. 5.; Ⓓ, EBSi, 「외교술로 국내 정치 기반 잡았다! 신라의 삼국 통일, 김춘추. 인물로 우리 역사」, EBSi, 2021. 7. 25.; Ⓔ, 황현필, 「당태종vs연개소문, 의자왕vs김춘추(Feat 백제 멸망)」, 황현필 한국사, 2019. 12. 19.; Ⓕ, 최태성,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신라 왕 즉위! 복수를 위해 백제로 향한 김유신」, tvN STORY, 2023. 1. 20.

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고구려'의 위상이 높은 이유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과 같은 콘텐츠의 생산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해석했다 하더라도 가상의 시나리오인 '상상의 이야기' 일 뿐 '역사'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채널 '센서스튜디오'의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다면?」은 5분 12초의 영상에서 '신라'와 '백제'는 각 8회 등장하며 '고구려'는 22회 등장한다. 또한 댓글은 1천 500개 이상 달려 있다. '보다BD'의 「전투 민족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하면 벌어지는 일」의 12분 16초짜리 영상에서는 '신라' 9회, '백제' 7회 등장하지만 '고구려'는 48회 등장한다. 댓글수도 1천 개가 넘는다. 역사 관련 콘텐츠에서 1천 개 이상의 댓글은 흔한 일은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26개의 콘텐츠 중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린 콘텐츠는 4편이며 그중에 3편이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콘텐츠다.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에 상상 속 이야기를 혼재시킨 '창작물'에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4. 유튜브 영상에 나타난 역사인식

### 4.1. 영상의 오디오 데이터

유튜브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버의 역사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버의 어조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을수록 대중은 더 열정적으로 역사이야기에 빠져든다. 인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쾌감을 느낀다<sup>34</sup>고 한다. 기득권층이라 판단되는 집단을 공격하여 얻게 되는 심리적 쾌감은 유튜버와 해당 영상 이용자를 연

34 나카노 노부코(2023), 김현정 역, 『정의중독』, 시크릿하우스, p. 8.

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채널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15분 전후의 짧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시킨다. 영상의 길이가 짧을수록 인과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인용 2]<sup>35</sup>

- ㉔ 학계에선 어떻게 생각하냐면 … 있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안승 이○○가 하는 짓거리가 … 바로 신라로 들어가서 무릎 꿇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신라랑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고구려 … 이건 뭐 씨 신라의 괴뢰 정부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내가 뭐 씨 학자로서 지금 논문 써 가지고 뭐 인정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신라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신라의 삼국통일을 자랑스럽게 글을 쓰고 논문을 썼던 진짜 미친 정신병자 같은 역사학자들에게 는요 진짜 한소리 하고 싶습니다. … 강의실이 추워가지고 맥주를 좀 별컱별컱 했잖아요 피디님 그랬더니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 ㉕ 김춘추와 김유신은 하자가 있는 인물이에요 … 그래서 하자가 있는 인물들인데 하자가 있는 인물이 손을 잡고
- ㉖ 민족이라는 큰 질서 속에서 보면은 신라 흔히 말하는 중국 쪽과 동맹을 맺어서 백제 그리고 고구려를 쓰러뜨린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사건은 물론 삼국통일도 아니죠. 발해가 곧 건국했으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 전체 질서에서 놓고 볼 때는 좀 비판적 소지가 있습니다 … 그 이후 한민족사가 한국사가 아니라 한민족사가 전개되는데 그런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한 계기가 된 사실

35 전처리를 하지 않은 원시 데이터에서 인용하였다. 밑줄은 인용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이고 ‘○○’는 원문의 육설을 기호로 바꾼 것임. ㉔, 황현필, 「[삼국통일14] 삼국통일이라고? 그렇다면…」, 황현필 한국사, 2020. 1. 6.; ㉕, 이덕일, 「신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삼국 통일을 이끌었다」, 이덕일 역사TV, 2021. 2. 20.; ㉖, 윤명철, 「신라의 삼국통일은 민족의 승리인가? 반역인가?」, 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2019. 8. 10.

입니다.

[인용 2]의 ㉔는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채널의 영상이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해당 유튜버는 전직 역사교사 출신이다. 자신의 설명이 옳음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분노에 찬 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흥분은 확증 편향을 강화<sup>36</sup>시키며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해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유튜버가 스스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스스로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sup>37</sup> 유튜버가 비이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심리와 집단 사고에 휩쓸려 동조하는 댓글을 다는 이용자의 공통점은 쉽게 흥분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대중은 자신의 심리를 이용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기 쉽다<sup>38</sup>고 한다. 관련 영상이 역사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유튜브의 역사 관련 영상은 학생 이용자도 있다.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자료에는 사료도 있지만 미디어의 다양한 텍스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폭발적 확장은 학습자들의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㉕의 유튜버가 인지하고 있는 '하자'란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적 평가뿐 아니라 역사학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해당 유튜버의 식민사관 관련 다양한 콘텐츠에 잘 드러난다. ①의 유튜버는 삼국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역사교과서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인식이다. 해당 유튜버는 전직 대학 교수로 관련 내용을 수업받은 학생들의 역사인식

36 톰 니콜스(2017), 정혜윤 역, 『전문가와 강적들』, 오르마, pp. 93-94.

37 리처드 폴·린다 엘더(2008), 원만희 역,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 궁리, p. 21.

38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2020), 염정용 역, 『새로운 대중의 탄생』, 21세기북스, pp. 86-87.

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유튜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 또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한다. 하지만 역사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정당성 제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또한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대중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대중의 공감대가 댓글로 표출되면 그것이 곧 자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39</sup>

둘째, ‘삼국통일’ 관련 내용에 일제 식민사관을 소환하거나 역사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식민사학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용 3]<sup>40</sup>

① 우리 역사는 대륙역사임에도 … 이를 목살하고 일제의 반도식민사관을 그대로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라의 영역은 … 한반도 안인 것처럼 꾸며 두었는데 이것 또한 일제의 허위 조작에 따른 허구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문외한이 제멋대로 함부로 적고 있는 것은 너무 역사 무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당연합군이 싸운 전쟁처는 이미 밝혔듯 한반도가 아니고 바로 대륙인 것입니다. … 따라서 반도에 우리 역사를 가져다 놓은 어불성설의 역사해석과 교육은 국가민족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39 정철운(2018), 『요제프 피벨스』, 인물과사상사, pp. 85-86; 김일철·유지희(2014), 『스토리두잉』, 컬처그라퍼, pp. 171-173.

40 ①, 익명B, 「신라 삼국통일 지역은 어디인가?」, 쿠팰타이TV, 2023. 8. 26.; ②, 강제민, 「신라는 삼국통일을 한 적이 없다(?) |삼국통일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 강제민 한국사, 2023. 1. 7.

- 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김춘추 김유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계승했던 김부식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견해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로 매도했다가도 영상 내용의 신뢰도를 올릴 때는 역사학계의 권위를 차용하여 연구 성과를 언급하기도 한다. 역사학계의 권위를 멋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 없이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라고 공격하는 것은 역사학계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역사 교육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학계의 학문적 가치를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혐오 발언은 생각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sup>41</sup>

인터넷의 등장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기득권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긴 점<sup>42</sup>도 문제다.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온라인 창고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영업 전략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영상은 대중문화로서 지적 생산물이 아닌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품에 가깝다.<sup>43</sup>

## 4.2. 댓글 데이터

댓글은 이용자의 역사인식을 가늠하는 데 용이한 데이터다. 영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댓글, 영상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유튜버에 대한 비난의 댓글,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로 매도하는 댓글로 나누어 다음과 같

41 최인철 외(2021), 『헤이트』, 마로니에북스, pp. 55-59.

42 정지혜(2023),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 개마고원, p. 57, pp. 128-130.

43 백선기(2015), 『대중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 13.

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영상 내용에 공감 및 동의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댓글이다. ‘선생’, ‘감사’, ‘강의’ 등은 댓글 데이터에서만 나타난다. 영상 속 ‘선생’(강연자)의 ‘강의’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다. 채널 이용자들은 영상과 관련해 어떤 점을 감사해하는지 살펴보았다. [인용 4]는 ‘감사’가 저장되어 있는 댓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인용 4]<sup>44</sup>

- ㉓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㉔ 감사합니다. 신라를 미워했는데, 최근에 소장님 강의를 듣고 신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신라보다 먼저 외세 왜구, 즉 일본군을 한 반도에 끌어들인 게 백제입니다.
- ㉕ 바른 역사를 알리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 ㉖ 제일 헛갈리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 ㉗ 함께 기뻐하며 함께 분노하며 본 시리즈도 열광하며 잘 봤습니다. 역사를 역사답게~ 늘 감사합니다.
- ㉘ 이번 역사 100점 맞았습니다. 역사가 약한 과목이라 강의 들으며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 ㉙ 차라리 신라가 통일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세 끌어들였다고 뭐라 하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고구려도 외세였음.
- ㉚ 조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안개가 걷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4 ㉓, 설민석, 「[공무원한국사] 삼국 통일 과정」, 설민석Seol Min Seok, 2021. 9. 10.; ㉔, 이덕일(2021. 2. 20.); ㉕, 강제민(2023. 1. 7.); ㉖, 최재원, 「삼국통일2탄(백제멸망부터 기벌포전투까지 10분 순삭ver.)」, 역사길잡이책재원샘, 2021. 3. 21.; ㉗, 황현필(2020. 1. 6.); ㉘, 이보람, 「중3역사② [2-1]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팍공시대TV, 2024. 5. 16.; ㉙, 익명A,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다면?」, 쉐퍼스튜디오, 2020. 6. 8.; ㉚, 조갑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 건국’도 부정하게 된다!」, 조갑제TV, 2019. 5. 12.; ㉛, 익명B(2023. 8. 26.); ㉜, 고종훈, 「삼국 통일 전쟁」, 고종훈한국사, 2016. 1. 11.

- ㉔ 존경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제반도사관 강단사학을 타도해야 한다.
- ㉕ 좋은 강의를 무료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가 영상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인사성 댓글이 많다. 앞서 감사를 표현한 이용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정서적 동질감을 얻으려는 순응 편향(Conformity Bias)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5</sup> 또한 모든 콘텐츠에 '감사'가 출현하지는 않는다. '감사'를 사용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댓글도 많다.

[인용 5]<sup>46</sup>

- ㉗ 선생님의 열정 항상 감동입니다. 선생님~ 재미있는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 ㉘ 역시 강의력 탑티어. 진짜 강의 잘한다.
- ㉙ 와 이걸 진짜 열 번 봐야겠다.
- ㉚ 나는 역사가 뭐가 몇 년도에 났는지 외우는 공부는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싫은데 이렇게 그 속 알맹이를 듣는 건 너무 재밌음.

두 번째는 영상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유튜버에 대한 비난의 댓글에는 [인용 6]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45 크리스토퍼 J. 퍼거슨(2023), 김희봉 역, 『나만 옳다는 착각』, 선순환, pp. 35-37; 토드 로즈(2023),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p. 24; 폴 클라인먼(2024), 문희경 역, 『드디어 만나는 심리학 수업』, 현대지성, pp. 211-215.

46 ㉗, 강제민(2023. 1. 7.); ㉘, 설민석, 「[공무원한국사] 삼국 통일 과정」, 설민석 Seol Min Seok, 2021. 9. 10.; ㉙, 이영, 「[삼국통일전쟁 몰아보기] 고구려VS백제VS신라 그리고 나당전쟁까지」, 역사돋보기이영, 2022. 3. 10.; ㉚, 안정준, 「전투 민족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면 벌어지는 일」, 보다BODA, 2024. 1. 11.

[인용 6]<sup>47</sup>

- ㉔ 그나마 신라가 견재해 반도를 지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천운으로 여기고 감사해라.
- ㉕ 현재 역사학자나 교과서도 엉터리지만 황가 자네도 완전 엉터리다. 엉터리 공부시키지 말고 니 자신부터 다시 공부해라. … 당시 무슨 민족이 있고, 외세가 있단 말이나. 7년간 22회의 나당 전쟁은 일방적으로 신라가 승리했고, 땅 한 치도 안 뺏기고 더 넓혔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 반도 땅에 없었다.
- ㉖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이 왜 무의미하죠. 제가 의문인 게 역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사람들마다 저러한 전제를 하면서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 ㉗ 썬네일이랑 제목은 유사과학/유사사학자들이나 신봉할 법한 개소리로 달아놓고 내용은 전공자가 나와서 진지하게 제대로 강의함.
- ㉘ 삼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대립관계이다. 무슨 반역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적을 물리치는데 무슨 민족 반역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 ㉙ 신라가 삼국통일 했다는 과학적 증거도 나온 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 사편수회에서 만든 조선사 37권에 통일신라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다고 한다. 즉, 통일신라는 일제의 조작용어이며 공산중국의 동북공정의 조작용어로서 이는 역사가 아닌 판타지소설에 불과하다.
- ㉚ 삼한일통이 바로 삼국통일, 즉 삼한인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일을 지칭하는 것임을 모르는가? 또한 만주원류고에서도 삼한일통의 신라 강역을 만주 전체로 기록하고 있음도 모르시는가?
- ㉛ 교수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통일을 바라면서 가상의 역사를 만들면서 신라의 삼한일통을 인정 안하고 선악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는 역사

47 ㉔·㉕, 황현필(2020. 1. 6.); ㉖, 익명C, 「만주를 호령했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지리트릭스\_GeoTrix, 2023. 1. 7.; ㉗, 안정준(2024. 1. 11.); ㉘·㉙, 윤명철(2019. 9. 10.).

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동의하는 댓글이 많은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 반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유튜브 이용자들끼리 설전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㉔-㉕는 같은 영상이다. ㉕를 제외한 이용자들은 해당 영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㉕는 ㉔, ㉖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시한 근거가 유사 역사계의 주장이기 때문에 ㉕ 이용자는 어떤 의도로 해당 댓글을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작 이용자들은 영상 내용보다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낼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댓글에는 유튜브 버를 비난하는 글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댓글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채널 규모에 상관없이 유튜버를 포함한 제작사 측에서는 비난하는 댓글에 일일이 답글로 응수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난마저 감사할지 모른다. 어쨌든 반론을 남기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클릭하여 머물러야 한다. 이는 개인 유튜버 또는 제작사 측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진다.<sup>48</sup>

세 번째는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로 매도하여 비난하는 댓글이다. 다음 [인용 7]의 사례를 살펴보자.

#### [인용 7]<sup>49</sup>

㉑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치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바보입니다. 역사 전공자 및 학자 특히 역사교과서를 만든 학

48 유튜브 영상의 조회 한 건에 0.7-1원 정도 수익이 산출된다[강준만(2019), p. 588]고 한다. 클릭 수를 늘리는 것에 유튜버들이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구조다.

49 ㉑-㉕, 익명B(2023. 8. 26.); ㉕, 익명C(2023. 1. 7.); ㉖·㉗, 안정준(2024. 1. 11.); ㉘, KBS, 「KBS 한국사전-백제를 멸하리라, 김춘추의 지독한 복수」, KBS역사저널그날, 2020. 2. 14.; ㉙, 이영, 「[삼국통일전쟁 몰아보기] 시간순삭 고구려vs백제vs신라 그리고 나당전쟁」, 역사돋보기이영, 2022. 3. 10.

자는 역적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에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 예전 영상에서 식민반도사관의 역사지도들을 인용하는 걸 보고서 비판을 했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세뇌된 반도사관을 모조리 단번에 벗어 버리기가 쉬운 건 아니겠지요.
- ㉡ 식민사관을 추종하며 이성적인 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라는 것. 응원합니다.
- ㉢ \*강단사학\*은 이 내용을 싫어합니다. 쇼비니
- ㉣ 식민사학자들 내쫓고 학위 취소해야
- ㉤ 식민사학 전공했소? 뭐 [○○]요? 삼국이 모두 대륙을 지배했건만. 참 어이없소.
- ㉥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래 많은 사람이 본다니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합니다. 식민사학 교육을 받아서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 ㉦ 이런 대표적 악질 식민사학자가 얼굴 디밀고 활개치는 대한민국 현실
- ㉧ 경성제국대 서울대 이병도 잔당 발악하는구나. 이병도 스승이 누구입니까
- ㉨ 식민사학자들한테 가짜역사 배우고 여기서 자랑하는 거 아닌지요 가짜역사 전파하지 맙시다. 어이가 없네. 가짜를 진짜인 듯 떠들고 있으니

[인용 7]에 보이는 특정 단어(A: '역사 전공자', '학자', '식민반도사관', '식민사관', '강단사학', '식민사학자', '식민사학')는 역사학계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소비한 단어라 짐작된다. 단순한 감정 표출도 있겠지만 역사학계를 식민사학계로 매도하거나 관련지어 동조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민족주의'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튜브에서 디지털 민족주의를 앞세워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소환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영상의 내용이 식민사관과 전혀 무관해도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다. 이용자들은 유튜브가 흥분하는 근거를 저장되어 있는 댓글을 통해 확인한 후 이에 동

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해당 영상의 댓글을 실명으로만 남길 수 있다면 동조나 순응 편향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역사 관련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와 댓글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용자를 자극시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첫째, A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튜버가 영상 중간중간 흥분하면 된다. 이때 유튜버의 표정, 손짓, 영상 속 이미지, 음향 효과 등 비언어적 요소와 비속어, 막말, 욕설 등의 언어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sup>50</sup> 많은 사람들이 먼저 댓글 단 이용자들의 생각이 옳을 것이라는 밴드 왜건(Bandwagon) 오류<sup>51</sup>에 빠져 동조하는 '폭포 현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대중의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둘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창작하면 된다. 이와 같은 영상의 댓글창은 공개 토론장 분위기를 만들며 조회수와 댓글수를 높이는 공신 역할을 한다. 또한 댓글을 읽은 다른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해 같은 생각으로 이끄는 집단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영상 이용자는 평소 가졌던 생각과 같거나 유사한 생각이 댓글에 있을 경우 더욱 쉽게 동조한다. 이때 먼저 댓글을 단 이용자의 생각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을 이을수록 유튜버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증에 빠진다.<sup>52</sup> 왜냐하면 앞서 남겨진 댓글은 해당 댓글을 읽은 이용자에게 동조하거나 편승하도록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sup>53</sup> 이처럼 유튜브의 댓글은 영상 이용자들의 공통된 역사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형국이다.

50 토드 로즈(2023), 노정태 역, pp. 260-263.

51 이상혁(2021), 『(Dr. LEE) 오류와 편향을 넘어선 논증』, 연암사, pp. 107-108.

52 캐스 R. 선스타인(2011), 이정인 역,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프리뷰, pp. 11-13, p. 42; 캐스 R. 선스타인(2015), 박지우·송호창 역,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후마니타스, pp. 214-215.

53 이남석(2013), 이정모 감수, pp. 290-291.

일부 유튜버들이 A와 같은 단어를 유통시키는 것에 동조하여 악의적 댓글을 남긴 사람은 유튜버의 말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제시한 사료와 데이터에 근거해 직접 보고 듣고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믿는 ‘확신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sup>54</sup> 사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전문역사학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史實)은 다른 사실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단편적인 사실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전체를 말하는 것은 꼬끼리 다리를 만진 후 거대한 원기둥이라고 열변하는 것과 같다. 이용자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착각은 지속될 수 있다.<sup>55</sup>

적잖은 유튜버는 역사교육학, 사학과 학사 또는 석사 출신이거나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공개되어 있는 이들의 프로필은 영상 이용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가려 버린다. 유튜브에는 콘텐츠를 점검하여 취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Gate Keeping)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콘텐츠는 오직 제작자와 이용자의 결정에 의해 생산·소비될 뿐이다. 이용자들은 근거 없이 편향된 관점으로 특정 역사적 사실을 왜곡 또는 일부 조작한 내용을 접하고도 유튜버에게 현혹 또는 선동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히려 역사학계를 비난하며 바른 역사를 알려준 유튜버에 감사해하는 인지 부조화에 빠진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삼국통일’ 관련 대중의 역사인식을

54 로버트 그린(2019), 이지연 역, 『인간 본성의 법칙』,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p. 56.

55 김민식(2023), 『더 컨트롤러』, 21세기북스, p. 17, p. 44; 케스 R. 섀스타인(2023), 김도원 역, 『라이언스』, 북이십일 아르테, p. 130.

탐구하기 위해 SNS 데이터, 유튜브 오디오 데이터, 유튜브 댓글의 소비패턴을 경향성과 인지 편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에서 소비되고 있는 역사 관련 다양한 이야기는 역사 소비의 새로운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역사대중화의 한 축으로서 활용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역사교육은 학습자들이 과거의 사실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sup>56</sup>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역사를 재생산·유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유튜브 영상, 댓글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고구려'로 나타났다. 반면 SNS 데이터는 문화친화적인 단어의 소비가 많았으며 '삼국통일'은 과도한 출현 빈도를 나타내지만 의미 있는 단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둘째, '당'은 모든 데이터에서 위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중은 당에 대해 삼국통일 과정의 유의미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보였다. 셋째, 소셜미디어에서는 삼국통일 관련 인물의 위상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미디어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은 SNS의 경우 친목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막말,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SNS에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학교의 수행 과제를 해결하는 자료 창고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유튜브는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욕설, 과도한 행동, 급변하는 얼굴 표정으로 시청자들을 자극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무례와 행위를 통한 비언어적 무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이용자로서 대중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역

56 김기봉(2000), p. 62.

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영상조차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즐긴다. 둘째, 댓글은 토론의 장 역할을 한다.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에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 타인의 비판이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사회적 의미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앞세운 분별 없는 비난은 영상 속 유투버나 영상 이용자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문제라 판단된다.

셋째, 역사학계의 검증된 학설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콘텐츠의 신뢰도를 올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격을 가한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을 활용할 뿐 학문으로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역사’를 말하는 ‘역사가’라 자칭한다. 넷째, 역사학계를 식민사학 집단으로 매도하여 채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건전한 비판은 연구방법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명분 없는 원색적 맹비난은 대중의 역사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존 역사가들의 견해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혼합하여 자유분방하게 표출한다. 그 피해는 청소년 이용자와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교사의 몫이 될 수 있다.

역사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역사이해에 도달하려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sup>57</sup> 이에 역사교육학 분야에서는 더욱 풍부하고 충실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58</sup>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된 역사 관련 콘텐츠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역사교육학 분야에서 제기된 지 오래다.<sup>59</sup> 역사교육학 분야에서는 역사를 연

57 최상훈(2010), 「역사교육의 목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p. 24.

58 양호환(2009), p. 48.

59 양호환(2009), pp. 44-49.

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를 통해 조작 또는 허구의 가공된 역사를 '역사왜곡'으로만 몰아 비판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본질적인 속성과 실제 역사와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은 역사를 어떻게 재생산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 글의 대중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한정할 수 없는 개인이 대부분이다. 한편으로 '대중'의 정의와 범주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의 역사인식은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시민저널리즘의 환경을 앞당기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언론에는 대중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사의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인도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언론의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대중의 언론 참여 기회도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특정 의제를 대중은 어떻게 재생산·소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대중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층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삼국통일'을 둘러싼 인식이 고대사 전반을 대표하는 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고대사뿐 아니라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 전반에 관한 대중의 인식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주의 사학은 한국의 근대역사학과의 상관성이 크다. 이를 통해 역사학계의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의 역사인식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식민사관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4]」.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부(2018a),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2018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 논저

- 강성호(2021),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다빈치하우스-미디어쇼.  
 강용철·정형근(2022),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을 읽는 힘』, 쌤터.  
 강준만(2019), 『한국 언론사』, 인물과지성사.  
 공훈의(2010), 『소셜미디어 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한스미디어.  
 구현주(2021), 「개념사 연구에서 빅데이터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 『개념과소통』 27, 한림과학원.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2020), 염정용 역, 『새로운 대중의 탄생』, 21세기북스.  
 김기봉(2002),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김기봉(2007),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푸른역사.  
 김기봉(2021), 「AI 시대 역사학, 컴퓨터 역사학」, 『사람』 76, 수선사학회.  
 김민식(2023), 『더 컨트롤러』, 21세기북스.  
 김영하(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의 백제 통합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김일철·유지희(2014), 『스토리두잉』, 쉼처그래피.  
 김종복(2015),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위한 예비적 검토」,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진호(2016),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 북카라반.  
 나카노 노부코(2023), 김현정 역, 『정의중독』, 시크릿하우스.  
 낸시 두아르테(2021), 권혜정 역, 『데이터 스토리-데이터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한빛미디어.  
 로버트 그린(2019), 이지연 역, 『인간 본성의 법칙』,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룩 라이히 외(2022), 이영래 역, 『시스템 에러: 빅테크 시대의 윤리학』, 어크로스.  
 리처드 폴·린다 엘더(2008), 원만희 역,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 궁리.  
 미야자키 마사카츠(2021), 장하나 역,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 매일경제신문사.

- 백선기(2015), 『대중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민(2017),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청람.
- 안병우(2017), 「역사연구와 기록: 현대 역사학과 기록학의 지향과 과제」, 『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 양호환(2009),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 이남석(2013), 이정모 감수,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 편향』, 옥당.
- 이상국(2016),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디지털 역사의 시작」, 『응용통계연구』 29(6), 한국통계학회.
- 이상동·박충식(2020), 「From Data Agents: 한국 디지털 역사의 현주소와 AI 시대의 역사학」, 『HOMO MIGRANS』 22, 이주사학회.
- 이상혁(2021), 『(Dr. LEE) 오류와 편향을 넘어선 논증』, 연암사.
- 이신철(2012), 「한국 근대 역사주체의 형성과 근대 역사학의 태동」, 『사람』 42, 수선사학회.
- 이정락 외(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재환(2019), 「7세기 중·후반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126, 역사비평사.
- 이항우(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성: 한 온라인 토론그룹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밍(flaming)”에 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5, 한국정보사회학회.
- 임지현 외(2022), 『역사에서 기억으로』, 진실의힘.
- 정상근(2022), 『엄론협오사회』, 행성B.
- 정상우(2012),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 정선화(2022a), 「SNS 기록을 통해 본 대중의 가야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78, 동북아역사재단.
- 鄭善花(2022b),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가야사 인식과 이미지텔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64, 역사교육연구회.
- 정선화(2024), 「'삼국통일' 및 발해사 관련 역사인식과 용어 사용의 비판적 검토」, 『사람』 90, 수선사학회.
- 정원준(2021), 「코로나19 위험 커뮤니케이션 탐색 연구: 소셜 미디어 의존 이론을 응용한 정부와 일반인 유튜브 콘텐츠와 댓글 내 담론 분석」, 『홍보학연구』 25(2), 한국 PR학회.
- 정준영(202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지혜(2023),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 개마고원.
- 정철운(2018), 『요제프 괴벨스』, 인물과사상사.
- 조윤호(2016), 『나쁜 뉴스의 나라』, 한빛비즈.
- 최상훈(2010), 「역사교육의 목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 최은창(2020), 『가짜뉴스의 고고학』, 동아시아.
- 최인철 외(2021), 『헤이트』, 마로니에북스.

- 캐스 R. 선스타인(2011), 이정인 역,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프리뷰.
- 캐스 R. 선스타인(2015), 박지우·송호창 역,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후마니타스.
- 캐스 R. 선스타인(2023), 김도원 역, 『라이언스』, 북이십일 아르테.
- 크리스토퍼 J. 퍼거슨(2023), 김희봉 역, 『나만 옳다는 착각』, 선순환.
- 토드 로즈(2023),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 톰 니콜스(2017), 정혜윤 역, 『전문가와 강적들』, 오르마.
- 포스터 프로보스트·톰 포셋(2014), 강권학 역,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과학』, 한빛미디어.
- 폴 클라인먼(2024), 문희경 역, 『드디어 만나는 심리학 수업』, 현대지성.
- 필리프 브르통(2020), 박선희 역, 『조작된 말』,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균태 외(2011), 『현대사회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수(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원고 접수일: 2025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5년 2월 13일

## ABSTRACT

#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n Social Media

Jeong, Sunhwa\*

Focusing on the Cognitive Bias of YouTube Users

In this research the public's perception of history was explored through data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in social media.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specific keywords in SNS data stored by social media users, audio data in YouTube videos, and comments and network structure were examined to examine users' percep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use of social media,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correlation between SNS data and keywords produced and consumed on YouTube. In spaces where friendship was a key element of operation, such as blogs and cafes, the frequency of use of culture-friendly words was found to be high, as was the frequency of student questions for solving history class task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are channels on YouTube that upload content reconstructing historical facts, the distribution of videos containing created 'story' that augment and re-interpret fac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video was found to be active. In such videos, the frequency

---

\* Ph.D., Histor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of historically inconsistent content or rude talk and abusive language toward a specific group was found to be high, and a similar type of group dramatization could be confirmed in the corresponding comments.

**Keyword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ocial Media, Public, History Awareness, Cognitive Bias